



소진공, 디지털 특성화대학 성과공유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1일 ‘2023년 디지털 특성화대학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디지털 특성화대학별 우수한 성과를 낸 교육생의 사례를 공유해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대내외 협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사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사업은 지역 대학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및 온라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운영 규모는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7개로 확대됐으며 교육 수료생도 2021년 314명, 2022년 1055명, 올해 18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대, 목포대 등 운영 대학 17곳과 각 대학 교육생, 사업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별 우수제품 전시와 교육생 발표 및 우수 사례 선정으로 진행됐다. **박소영 기자**



국민연금 광주본부 ‘마음있는 사회봉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마음있는 사회봉사’를 통해 관내 100여명의 독거 수급자를 찾아가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마음있는 사회봉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사회공헌 브랜드 ‘국민연금 사랑the하기’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후원 대상은 수급권 확인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어려운 형편의 독거 노령연금 수급자로, 매 분기마다 직원들이 저소득 독거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계절에 맞는 물품과 건강식품, 식료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도움을 받은 가구는 총 1100여가구로, 이번 방문에서는 겨울용 이불, 건강식 등 월동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일부 가구에는 화장실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 등 주거안전용품 설치를 도왔다.

박경순 연금지급부장은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중소기업융합대전 유공자’ 표창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3일 기업간 기술교류 및 협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융합대전 유공자’로 4명이 선정돼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중기부장관상을 수여한 유공자는 △최광일 ㈜대명엘리베이터 대표 △김일성 ㈜현대고속 대표 △임장수 에이치제이엔지 대표 △조규서 (유)안영사 대표다. (사진)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은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이 융복합되는 환경에서 개방형 혁신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산업을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협업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며 “기업간 협업과 융합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사회복지모금회 ‘착한펫’ 업무협약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가 나눔을 실천하는 반려동물 기부프로그램 착한펫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엔 손정은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박초이 오수펫 주모공원 대표, 이현아 광주동물보호소 소장,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착한펫’ 프로그램은 개·고양이뿐 아니라 햄스터, 도마뱀 등 어떤 동물이든 가입할 수 있다. 재원은 취약계층들에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비용·사료 등 지원과 유기동물 복지사업비로 사용된다.

광주 ‘착한펫 7’ 호로 가입한 ‘산둥이’는 손정은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반려견이다. 산둥이는 잉글랜드 쉽견종으로 대형견이며 광주 유일한 현혈견이다. 반려견 수술이 있을 때 산둥이의 응급 현혈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강주비 기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대병원 MOU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 문화콘텐츠 홍보 및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및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역 공헌 활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광주 문화콘텐츠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우호 관계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양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경주 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홍보 및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공헌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두 기관이 지역 발전에 선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양제철-전남드래곤즈 ‘희망 Goal 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가 10여 년째 이어온 ‘희망 Goal 썰’ 기부 행사가 올해도 펼쳐졌다. (사진)

13일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에 따르면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회의실에서 ‘감사 나눔 희망 Goal’ 썰 전달식 행사가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사장, 이광수 전남드래곤즈 사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등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감사 나눔 희망 Goal’ 썰 전달식은 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가 2012년부터 이어왔다. 전남드래곤즈 선수들이 홈경기에 출전해 골을 넣을 때마다 광양제철소와 전남드래곤즈가 각각 100kg씩 총 200kg의 쌀을 적립해 연말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올해 전남드래곤즈 선수들은 홈 경기에서 32골을 기록했다. 총 6400kg(320포대)의 쌀이 광양 시사랑 나눔복지재단에 전해졌다. **광양·안영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영화 ‘서울의 봄’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개봉 20일 만인 이날 오전 700만 관객을 기록했다.

‘서울의 봄’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영화 TOP3

영화 ‘서울의 봄’이 코로나 사태 이후 나온 한국영화 중 세 번째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작품이 됐다. 최다 관객 1위와 2위는 ‘범죄도시’ 시리즈다.

‘서울의 봄’은 12일 19만9975명을 추가, 누적 관객수 736만2644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나온 ‘한산:용의 출현’ (726만명)을 제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공개된 한국 영화 중 세 번째로 많은 관객이 찾은 작품이 됐다. 1위는 ‘범죄도시2’ (1269만명)이고, 2위는 ‘범죄도시3’ (1068만명)이다.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아닌 영화로 한정하면 ‘서울의 봄’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관객 작품이다.

‘서울의 봄’ 흥행세는 오는 4주차 주말까지 이어질 거로 보인다. 13일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는 약 16만 7000명으로 현재 상영작 중 예매 순위

2위인 ‘괴물’ (약 1만8600명)을 멀찌감치 앞서고 있다.

이 영화는 ‘비트’ (1997) ‘태양은 없다’ (1999) ‘아수라’ (2016) 등을 만든 김성수 감독 신작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뒤 같은 해 12월12일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실제 사건을 영화화 했다. 하나회는 전두환이 주축인 군대 내 사조직이었다.

황정민은 전두환이 모티브가 된 캐릭터 ‘전두광’을, 정우성은 장태완 장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물인 ‘이태신’을 연기했다. 박해준이 전두광과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는 ‘노태건’을 맡았다. 이와 함께 이성민·김성균·정만식 등이 출연했다.

뉴스

‘더 글로리’ 넷플릭스 상반기 3위… 6억 시간 시청

배우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올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 시간 집계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일 (현지시간)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 넷플릭스가 발표한 ‘2023년 1월~6월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더 글로리: 시즌1’은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6억2280만 시간 시청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1위는 미국 액션 스릴러 ‘나이트 에이전트: 시즌1’ (8억1210만 시간)이었고, 2위는 코미디 드라마 ‘지니 & 조지아: 시즌2’ (6억6510만 시간)였다.

이밖에 ‘웬즈데이 시즌1’ (5억770만 시간), ‘퀸 살롯 :브리저튼 스토리’ (5억300만 시간) ‘너의 모든 것(You)

시즌4’ (4억4060만 시간), ‘남부의 여왕 시즌3’ (4억2960만 시간), ‘아우터뱅크 시즌3’ (4억250만 시간), ‘지니 & 조지아 시즌1’ (3억210만 시간), ‘푸바 시즌1’ (2억6620만 시간) 등이 10 위권에 올랐다.

한편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 (송혜교)이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 이야기다. 지난해 12월30일 시즌1이 공개된 후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를 했다.

이주영 기자

이성경·악뮤 이찬혁, 신곡 ‘잘 먹고 잘 살아’ 발매

모델 겸 배우 이성경과 듀오 ‘악뮤’ (AKMU) 멤버 이찬혁이 함께 신곡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사진)

13일 이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성경과 이찬혁은 이날 오후 12시 디지털 싱글 ‘잘 먹고 잘 살아’ (Eat Sleep Live Repeat)를 공개한다.

‘잘 먹고 잘 살아’는 이성경의 보컬과 이찬혁의 랩이 조화를 이루며 어쿠스틱한 멜로디에 하이 코러스 사운드가 함께 담겼다.

이번 신곡 가사는 이번 후 일상에 찾아오는 쓸쓸함을 표현했다.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일상적 소재를 직관적이고 담백한 가사로 풀어냈다. 이찬혁



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 뮤직비디오엔 이성경이 출연한다. 그녀의 표정 연기로 서사를 보여준다. **이주영 기자**